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은 농업 포기”

전국농민회총연맹, 특별위 설치·농업예산 증액 등 요구 정치권도 농도 전남 피해 가장 커 대응책 마련 촉구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내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기로 하자 농도인 전남을 비롯해 정치권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25일 “미래 협상 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책으로 “공익형 직불제”의 조속한 도입, 농업소득보전법 개정 추진, 채소류 가격안정제 지속 확대, 청년영농정착지원금 추진 등을 내놨다. 그러나 농민단체들은 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특별위원회 설치, 농업 예산을 전체 국가 예산의 4~5%로 증액, 농수산물 쿠파른 지급으로 수

확대 등 6개 항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은 지난 25일 성명에서 “20년간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 어떤 전망도 하지 못한 정부는 결국 농업을 파탄 내고 말았다”며 “정부의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은 농업 포기 선언이다”고 주장했다.

연맹은 “정부의 결정은 트럼프의 트윗 한 줄에 국권을 포기하는 사대 통상외교의 전형적 모습이다”며 “1996년 이후 오늘까지 개도국 지위를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농가 소득은 도시와 60% 차이가 날 정도로 정체됐고 모든 농산물 가격은 폭락해

서 생존권 자체가 무너진 상황에서 무슨 대책을 내놓을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비난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도 성명을 내고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면 전국 최대 쌀 생산지이자 주요 농산물 생산지인 농도 전남의 피해가 가장 클 수밖에 없다”며 “농업 위기를 극복할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도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국익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평가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무책임한 국정 운영이라고 질타하며 온도차를 보였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같은 결정은)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미

중 무역분쟁 등 변화하는 대외무역 환경과 높아진 우리의 경제적 위상과 국익을 고려한 것으로 이해된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농업분야에 당장 영향이 없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농민의 불안과 우려를 불식하고 농업 경쟁력을 높일 수는 없다”며 “우리 농업의 경쟁력과 농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 이창수 대변인은 논평에서 “농업에 대한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결국 정부는 무대책·무대응”이라며 “문재인 정권의 무원칙·임기응변 국정운영에 대해 국민은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도 일제히 관련 논평을 내놨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조선시대 최대 객사 건축물인 금성관 전경. <문화재청 제공>

조선시대 객사 건축물 ‘나주 금성관’ 보물 됐다

문화재청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문화재청은 전남도 유형문화재 금성관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제2037호로 지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나주 금성관”은 조선 시대 지방관아의 하나인 객사 건물이다. 객사란 임금을 상징하는 전패와 쥬패를 모시고 초하루와 보름마다 임금에 대한 예(망궐례)를 올리거나, 지방에 오는 사신이나 관원을 접대하는 공간이다.

금성관의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으나 ‘금성관중수상량문’과 ‘망하루 중수기’ 등 문헌으로 볼 때, 조선 초기부터 지금의 자리에서 있었고 현재 규모와 골격은 1617년 이전에 갖추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1775년과 1885년에 중수됐으며

일제 강점기 군 청사로 사용되다가 1976년 보수 이후 현재에 이르고 있다.

금성관의 중심 건물인 정청은 팔작지붕 형태로, 맞배지붕을 주로 사용하는 일반적인 객사의 정청과 대비된다. 인근의 나주향교 대성전도 일반적인 향교 대성전의 지붕 형태인 맞배지붕과 달리 팔작지붕의 형태라는 점에서 지역 특수성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금성관 양식은 주심포계 익공식 공포를 사용했으며 월대와 건물의 외관, 내부 천장 등이 궁궐의 정청과 유사하게 구성된 점도 다른 객사와 구별된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금성관은 나주 읍치(邑治)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대표하는 문화유산으로 원래의 자리에 원형을 잘 지키고 있다”며 “규모와 형태 면에서 다른 객사와 뚜렷한 차별성을 띠는 점에서 국가지정문화재로서의 역사적, 건축적, 학술적 가치가 높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섬진강 연어, 알래스카서 4년만에 돌아왔다

2016년 방류...산란위해 고향찾아 이동거리 1만6000km 달해

섬진강에 방류된 연어가 베링해, 알래스카 등 북태평양으로 갔다가 4년만에 산란을 위해 다시 돌아오고 있다. 지난 18일 오후 섬진강을 찾은 첫 연어는 4년 전 섬진강에서 방류된 어린 연어였다.

27일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 방류한 어린 연어가 약 40일간 섬진강에 머물면서 물 내새를 기억하고, 머나먼 베링해와 알래스카 해역으로 떠나 어미로 성장한 후 산란을 위해 4년만에 태어났던 곳으로 돌아왔다. 이동거리는 1만6000km로 마라톤 풀코스 380배에 달한다.

올해 어린 연어 생산을 위해 섬진강에

서 포획한 어미연어는 현재 114마리다. 수컷이 73마리, 암컷이 41마리다. 성숙한 수컷 연어의 경우 몸이 붉은색(흔인 색)을 띠는 특징이 있다. 과학원은 지난 1995년부터 연어자원 조성을 위해 섬진강으로 돌아온 어미 연어를 포획, 알과 정자를 인공수정한 후, 겨울 동안 성장시켜 이듬해 봄에 어린 연어를 다시 돌려보내고 있다.

지금까지 어미 연어 3431마리를 포획, 어린 연어 830만 마리를 방류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어미 연어 704마리를 포획해 올해 3월 어린 연어 40만 마리를 방류한 바 있다.

오광남 원장은 “알록달록 붉게 물든 북태평양연어를 직접 볼 수 있도록 오는 11월까지 섬진강어류생태관에서 특별전시회를 추진하는 한편, 산업적으로 잠재적 가



지난 2016년 섬진강에서 방류된 어린 연어가 4년만에 고향을 찾아 회귀하고 있다. 사진은 최근 섬진강으로 올라온 연어를 포획하고 있는 전남해양수산과학원 직원들.

치가 높은 연어자원을 계속 조성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연어는 회, 구이, 연어포 등 식품뿐만 아니라 점안액, 미용필러, 피부 재생 촉진제, 통증 완화 및 조직 재생

크림 등 의약품 개발에 이용된다. 뱀장어 증자생산 연구와 사료 개발 재료로도 활용되는 등 고부가가치 산업에 쓰인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北 “美, 정상간 친분 내세워 연말 넘기려 한다면 망상”

김영철 대미 담화 이례적 등장 美 유엔발언등 비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은 “미국이 자기 대통령과 우리 국무위원회 위원장과의 개인적 친분관계를 내세워 시간끌기를 하면서 이해 말을 무난히 넘겨보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망상”이라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27일 ‘조선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낸 담화에서 “최근 미국이 우리의 인내심과 아량을 오

판하면서 대조선 적대시 정책에 더욱 발광적으로 매달리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김 부위원장은 “얼마전 유엔총회 제74차 회의 1위원회 회의에서 미국 대표는 우리의 자위적 국방력 강화조치를 결코 들면서 미조 대화에 눈을 감고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북조선이 FFVD(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를 위한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해야 한다”는 하는 자국적인 망발을 늘어놓았다”고 거론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다른 나라들에 유엔

제재결의 이행을 집요하게 강박하고 있으며 추종 국가들을 내세워 유엔총회에서 반(反)공화국 결의안들을 통과시키기 위해 각방으로 책동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미 전략사령관 지명자가 최근 의회 상원에서 북한을 ‘불량배국가’로 혐멸했으며 미국 군부가 북한을 겨냥한 핵타격훈련까지 계획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찰스 리처드 미 전략사령관 지명자는 지난 24일(현지시간)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청문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현재 배치된 지상발사유격미사일(ICBM) 규모가 북한과 같은 불량 국가들의 잠재적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위협에 대응하기 위

해 적절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불량 국가들의 제한된 위협으로부터 미국을 방어할 역할을 갖추고 있다”고 답했다.

김 부위원장은 북미관계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친분관계 덕분이라면서 “모든 것에는 한계가 있는 법”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조미 수뇌들 사이의 친분관계는 결코 민심을 외면할 수 없으며 조미관계 악화를 방지하거나 보상하기 위한 담보가 아니다”라며 “조미관계에서는 어떤 실제적인 진전이 이룩된 것이 없으며 지금 당장이라도 불과 불이 같을 수 있는 교전관계가 그대로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 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NAVER 채권추심 회수왕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2-4306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입합니다!

투자·매도·교환

- 정충군 안양면 기산리 땅 891㎡ 주택·청고 137㎡ 전방 건물 2억5천
- 공성군 옥곡면 수리 계획관리지역 전 9504㎡ 투자에 좋음 1억9천
- 금매 무안군 청계면 도림리 목포대하 건너면 680㎡ 전원생활적합 3300만원
- 총남 태안군 안면면 정당리 땅 1749㎡ 교환 2억 현금 매도는 조정 가능
- 함평군 손불면 산남리 땅 9143㎡ 집 67㎡ 귀농생활 적합 2억
- 별장 영산강 부근 나주시 다시면 회진리 땅 450㎡ 건평 110㎡ 매도 2억8천
- 농장 적합 화순군 동면 대포리 10959㎡ 전원생활에 좋음 2억9천
- 무안 동탄면 영산강변 48900㎡ 펜션 14개동 양양시설 등 적합 교환가 28억
- 광천파출소 건너편 준주거 1259㎡ 병원 등 다용도 76억
- 나주시 다시면 광목간도로 4323㎡ 유통시설·청고 공장 등 적합 6억
- 제주도 서귀포 강정동 3647㎡ 빌라 등 적합 25억 약용 건물과 교환가능
- 담양군 금성면 석현리 915㎡ 창고·다세대 등 다용도 적합 2억9천
- 남구 덕남동 매립된 땅(담) 8232㎡ 주위조경좋은 9억4800
- 남구 덕남동 (노대동 노인건강타운) 부근 내지 652㎡ 남향 생활편리 5억5천
- 풍수상 사찰 최고 적합 덕남동산 26951㎡ 건물 67㎡ 교환가능 가격 조정됨 8억
- 전원주택 적합 영평군 백수읍 백암리 1130㎡ 조방 건물 1억3천

상가건물

- 운암동 아파트 단지 인근 땅 1124㎡ 건물 1733㎡ 전세 7월 680 임대 21억
- 계림동 아파트부근 6m 도로점점 땅 799㎡ 건물 497㎡ 은행 7억 사육 적합 15억천
- 운암동 아파트 상가동 지하 206㎡ 매입 2억 천고·사무실 등 적합 은행 8천 매도 1억5천
- 신축 원룸 광산구 도천동 땅 226㎡ 건물 381㎡ 안집 일룸 11개 9억5천
- 유동 신축커뮤니티 매지 73㎡ 2중건물 30평 시설완비 은행 1억 매도·교환 3억6천
- 월산동 상업지 땅 200㎡ 5층 건물 768㎡ 리모델링해야할 은행 3억천 매도 6억
- 북구 임동 모델빌 318㎡ 건평 5층 528㎡ 은행 2억3천 매도 6억천

특급물건

- 동구 신수동5거리 대로점 준주거 1249㎡ 병원·주상복합 적합 법인이전 49억
- 강진군 성천면 상업지 등 4240㎡ 강진산단에서 1km 소형 APT 등 적합 15억
- 요양시설 영평면 땅 5416㎡ 1층 477㎡ 증축가능 은행 4억 매도·교환 8억
- 나주시 남내동 상업지 959㎡ 오피스텔·소형APT 다세대 적합 교환 가능 9억5천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옆문앞

지난 20년간 13,000여명이 수강한 명강의

불황기에 뜨는 부동산 경매강의

(컨설팅과 재테크)

전임강사 : 정영수 경영학박사 (부동산 전공)

- 평생교육공로 교육과학부장관상 수상
- MBC - TV 방송국 경제특강
- KBC - 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강의
- 전남대 20년 강의(전대 용봉인상 수상)
- 공무원연수, 중소기업청, 한국전력 등 150여회 이상 특강

특전

자격 취득 희망시, 공인부동산비밀경영관리사, 부동산분양상담사, 부동산권리분석사 등 자격 취득도록 책임지도하며 수요후 모임제 결성하여 평생지도하여 드림

▶ 강의일정 | 2019년 9월 ~ 12월 (매주) 수요일 19:00~21:00

▶ 강의료 | 210,000원(15주) * 선착순 50명

▶ 조선대 평생교육원

전화 062)230-7700-2(010-5613-1808)

2019 이형만영광군향우장학회 장학생 모집

재단법인 이형만영광군향우장학회는 영광군민 및 재광영광군향우회원 자녀 중에서 애환심이 투철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특기 및 학업 성적 등 미래의 비전이 뛰어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장학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1 지원자격 및 선발인원
 - ◆ 지원자격
 - 영광군민 및 재광 영광군향우회 회원 자녀 중재 중고·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2019년 10월 1일 현재 영광군이나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된 부모를 둔 학생
 - ◆ 선발인원
 - 총 20명으로 하되, 영광군민 자녀 12명, 재광영광군향우 자녀 8명(예정)
- 2 선발방법 및 구비서류
 - ◆ 선발방법
 - 영광군민의 자녀 중 영광군수가 추천한 학생 (영광군 추천 방식에 의함)
 - 재광영광군향우 자녀는 별도 서류를 제출하여 장학생 선발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확정된 학생
 - ◆ 구비서류
 - ① 해당 학교장 또는 기관장 추천서 1부
 - ② 공적 조서해당 분야 자료 사본 첨부
 - ③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④ 재학증명서 1부 ⑤ 성적증명서 1부
 - ⑥ 통장 사본(본인 명의) ⑦ 개인정보이용동의서
 - ⑧ 글쓰기 작품 1점 : 수필, 자필시, 생활문장(학생에 선발된다면) 등 형식, 내용에 구애받지 않고 제출
- 3 서류접수 및 선발예정
 - ◆ 서류 접수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신청 및 문의처 : (우 61803) 광주광역시 서구 유림로 100 (동천동 해천빌딩 7층)
 - 전화 : (062) 522-8422/사무국장 김성수 010-4622-2337 / (이메일 kss237@hanmail.net)
 - ◆ 선발 일정
 - 접수 기간 : 2019년 11월 1일(금)~11월 20일(수) 17:00까지
 - 최종 선발 : 2019년 12월 초순 발표
 - (이형만영광군향우장학회 카페 및 개별 통보)
 - 장학금 지급 및 장학증서 수여식
 - 2019년 12월, 재광영광군향우회 송년의 날(12월말) 예정
 - 4 유의사항
 - 모든 제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선발이 취소됨
 - 관련 서류의 제출은 영광군민의 자녀는 영광군청으로 제출하고, 재광영광군향우의 자녀는 이형만영광군향우 장학회 사무국 사무실로 제출

* 영광군청 추천 : 영광군 추천 방식에 의함(구비 서류는 공통)
* 구비서류양식 : 재단법인 이형만영광군향우장학회 카페 https://cafe.daum.net/ihmygg 참고